

순천시, 해룡 축구장 건립 반복 말성

순천시가 해룡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당시 약속했던 축구장 건립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룡면 주민들은 순천시가 지난 2005년 12월 해룡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하면서 지역주민 우선 채용, 처리장에서 생산되는 퇴비의 무상공급, 잔디 축구장 건립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부지를 결정해 행정자치부로부터

면민들 “음식물처리장 건립시 약속 사항” 반발
시 “효율성 낮아 재검토...당시 확정 아니었다”

7천만원의 특별 교부세까지 지원 받았다.

그러나 순천시는 최근 축구장 건립 등 주민과 약속했던 지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해룡면 출신 전 시의원 임모씨는 “축구장 건립은 전임 시장이 서면과 구두로 수차례 약속했던 사항이었다”며 “당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명분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했는데 이제 와서 재검토의사를 밝히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

했다. 또 해룡면 청년회와 지역주민들은 순천시가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관계자는 “축구장 건립은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었을 뿐 약속 사항은 아니다”며 “60여명의 사업비를 들여 해룡면 남가리에 축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져 재검토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녹색 도시’ 광양 식목일 기념식수
광양시는 지난 23일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시민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62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시는 이날 백운산 휴양림 3ha에 동백나무 800여그루를 심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박람회 유치 기원 작은 정성 모았어요”

여수 동문동 주민들 성금 362만원 전달



여수시 동문동 주민들이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성금 362만원을 모아 지난 27일 오현섭 시장에게 전달했다. 동문동 관내 주민자치위원회의 생활지도자협의회, 생활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통장협의회 등 5개 단체 회원 100여명은 최근 회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KT-순천大 ‘계약형 학과’ 개설

《유비쿼터스통신공학과》

KT 순천지사와 순천대가 계약형 학과를 개설했다.

이번 학기에 개설된 학과는 ‘유비쿼터스통신공학과’로 KT순천지사와 KT순천네트워크센터 및 협력사에서 추천한 직원 20여명이 편입했다.

KT와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설계 학습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이 학과는 야간, 주말과 사이버강의 등을 통해 진행되며 과정을 마칠 경우 공학사 학위가 주어진다.

또 출석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과목은 KT인재개발원의 사이버교육 점수를 학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김영권 KT전남본부장은 “순천대와 KT순천지사는 IT기술을 접목한 광양마린시스템 구축, U-농업 솔루션 등 혁신산업 발굴에 협력하고 있는 좋은 파트너”라며 “사원들의 역량을 높여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국악과 난장’이 만나는 퓨전콘서트

광양제철소, 31일 ‘광양국악난장’ 개최
판소리·비보이 공연·퓨전국악 연주도

난장(亂場)과 국악이 만나는 이색 공연 ‘광양국악난장’이 오는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남드래곤즈 축구전용구장 등에서 열린다.

‘아름다운 하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과거 대규모 난장(亂場)이 열렸던 광양의 역사적 배경과 국악을 접목시켜 축제 형태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난장에서는 전통 궁중줄타기를 볼 수 있는 마당놀이뿐만 아니라 농악놀이, 전통악기 체험마당, 전통 연 전시 등이 열린다. 또 축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국악 멀티미디어

쇼’가 진행된다. 특히 판소리와 비보이(B-boy) 공연에 이어 양희은, SG워너비, 장윤정 등의 대중가수 공연, 퓨전국악 연주 등 국악과 현대 예술이 접목된 입체적인 퍼포먼스가 2시간 동안 펼쳐진다. 이날 행사는 출연자와 관객들이 화려한 불꽃놀이 속에 강강술사를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한편 광양문화회관에서는 판소리 명창 안숙선씨 등 4명이 적벽가, 심청가, 흥보가, 춘향가를 각각의 색깔로 풀어내는 ‘사인사색(四人四色)’ 공연이 열려 관객들을 흥겨운 국악 한마당으로 초대한다.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인 유영대 고려대 교수가 각 판소리의 특징과 공연되는 곡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순천 초대작가 40여명 작품 ‘한자리에’

내달 29일까지 남포미술관

‘2007 신춘기획 초대작가전’이 27일부터 4월29일까지 순천 남포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 출신 작가 40여명이 참여해 남도라는 역사와 지역적 배경을 토대로 한 8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김용근 화백은 “순천은 넓고 비옥한 평야와 지리산과 바다가 접해 있어 지리적으로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 곳”이라며 “이번 초대작가전이 지역 문화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용근 작 <세월>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포스코 주식 1주 더 사줍시다”

광양시, 시민대상 운동 전개

적대적 M&A(합병·인수)를 막기 위해 포스코 직원들이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포스코 주식 갖기 운동에 합류했다.

광양시는 기업과 지역민이 공존 공영하는 모범적 기업문화를 꽃 피우기 위해 포스코 주식 갖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의 동참을 위해 주식 계좌 개설 방법 등을 담은 서한문을 금명간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은행 광양포스코지점에 ‘포스코 주식갖기’ 전용 창구가 개설돼 있다.

광양시가 포스코 주식갖기 운동에 나선 것은 최근 세계 철강업계에 M&

A 열풍이 불어 타치면서 포스코의 외국인 주주가 60%로 확대돼 외국 금융회사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코는 저평가된 주가와 상대적으로 풍부한 보유자산 등으로 외국자본에 매력적으로 비칠 요소가 있고 증권가에서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 주식 4%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수합병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 알려지면서 인수합병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양시는 이 운동이 지역기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포스코의 전체 주식은 8천700만주에 달한다. 우리사주 형태로 132만6천598주(1.52%)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직원들도 이날부터 자발적인 ‘주식 1주 더 갖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光 州 日 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수 653-8444 (686-8584)	목포 276-9200	나주시 332-5544
광양 792-8111	무안 452-8535	나주군 332-7764
보성 853-9700	해남 534-5151	화순 374-4423
순천 746-8111	영광 554-6677	장성 392-7000
고흥 833-9900	영광 351-0055	담양 383-8111
녹동 842-2121	신안 243-3758	영암 473-2340
구례 783-8111	진도 543-0100	영광 863-8822
곡성 362-8111	강진 433-8355	광산 944-0444
	함평 324-8111	고흥 564-1919
		순창 653-6155

“장날엔 자전거 타고 오세요”

순천, 자전거 타는 날 지정
주차·교통난 해소 기대

순천시가 다음달부터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시장에 가는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 운영한다. ‘자전거 타는 날’ 운영으로 현재 5일장인 남부(2·7일), 북부(5·10일) 시장의 극심한 주차난과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전 시민 자전거 타기 북

조성을 위해 우선 관공서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연말까지 자전거 도로간 상호 연계체계 구축 등 자전거 주행과 관련된 편의시설 정비에 나선다. 시는 장날 자전거 타기가 정착될 경우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시장 주변의 교통난 해소로 재래시장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광양시, 소규모 초·중교에 급식도우미 15명 지원

광양시가 올해부터 농촌지역 10학급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15개교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한다.

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급식도우미 15명 분의 1년 인건비 1억3천200만원을 지원한다.

광양시는 매년 친환경 급식 식재료 구입에 30여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자녀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광고접수안내
☎ 061-270-1111
☎ 061-270-1100
☎ FAX 061-270-1100

CCTV
무선·유선 CCTV
24시간 감시
화상·음성 기록

약학(사주)수강생모집
1. 약학(사주)수강생모집
2. 약학(사주)수강생모집
3. 약학(사주)수강생모집

당뇨속보
당뇨병 예방·치료
당뇨병 자가진단
당뇨병 자가관리

건물매매
실버타운을
건물·주택지

대지부동산
1. 2002-2011 판매
011-451-2888

임대·옥상·하부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흥진부동산
부동산 전문회사

부동산 전문회사
부동산 전문회사